

한성우

《이럴 때일수록》.

이 말을 부르며 사람들은 용기백배 힘있게 나아가고있다.

그래서인지 모른다. 집에서 《근무》하는 날이 점점 늘어 컴퓨터와 매일 대면하고있는 필자에게도 인터넷을 통해 학교소식, 동포들소식이 흘러들어온다.

학생들과 다시 만날 날을 그려보며 리과수업에 쓸 말을 일구어 씨를 뿌리는 우리 학교 선생님. 동포들이 건강하여 힘을 내라고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운동》을 자체로 만들어 동영상으로 보급하는 동포예술인, 체육인들….

정체모르는 《코로나사태》를 날려보내려.

이것을 어찌 이들만의 심정이라 하랴.

며칠전의 저녁. 집의 초인종이 울리더니 밖에서 누군가가 주인을 찾는다.

《분회에서 왔습니다!》

19 시가 벌써 지났는데 분회장이 직접 동포들의 집집을 돌며 마스크를 하나하나 나누고있는것이였다. 그때 받은 마스크에는 한장의 쪽지가 끼여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지부에서 마스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냅시다!》

분회장이 내미신것을 받아든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고마웠다.

돈에 치우고 쫓기우는 이 세상에서 100 장을 얻은들 이처럼 기쁘지는 않았을것이다. 동포들이 서로 나누는 마스크는 그런 세상과 아무런 인연도 없기에….

어서 들어오시라는 우리 식구들의 말에도 《다음 집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몰고 가시던 분회장. 그의 등을 보면서 나는 다시 생각하였다.

(《이럴 때일수록》의 대오속에 나도 서있을가…?)

시간은 멈춰세울수 없으며 되돌릴수도 없다.

뜻밖에 조성된 이 어려움앞에서 동포들을 위한 일은 절대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렇다, 나에게는 비록 동포들에게 나누어줄 마스크는 없어도 이미 조직앞에 약속한 동포들을 위하는 일이 있다. 내가 적어가는 한자한자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뜨겁고 진정한 동포들의 마음과 이어질수 있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앞으로도 쓸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분발하고 또 분발하리라.

우리 동포들의 조직,총련결성 65 뚝이 다가온다.